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_053)250-3048~9_ <http://www.daegujobo.or.kr>



반야월성당 제대 벽면과 십자가 사진 _ 홍창익 비오 신부

† 오늘의 전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 11,1-45 참조)

라자로를 큰 부자였고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도 죽음을 피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의심할 수 없는 표징으로 세상에 드러내시려고 일부러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죽기까지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곧 다시 살아날 라자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북받치시고 눈물까지 흘리십니다. 이미 냄새가 나는 그 무덤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자로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그 모든 죄인들을 다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1독서 에제 37,12-14

제2독서 로마 8,8-11

복음 요한 11,1-45

입당송 하느님, 제 권리를 찾아 주소서. 불충한 백성에게 맞서 제 소송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의 힘이시옵니다.

화답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김정환 미카엘 신부 | 지곡본당 주임

“지울수록 살아나는 당신 모습은 / 내가 살고
가는 평생의 집입니다.

나는 밤낮으로 여울지는 끝없는 강물 / 흐르
지 않고는 목숨일 수 없음에
오늘도 부서지며 넘치는 강물입니다.”

이해인 수녀님의 〈강〉이라는 제목의 시입니
다. “지울수록 살아나는 당신 모습”, 곧 내려놓
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당신의 모습은 내가 지고 가야 할 평
생의 집”이라고 합니다. 수도자에게 무슨 그리
큰 집이 있는지, 무슨 그리 무거운 평생의 집
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지울수록
살아나는 당신 모습은 내가 살고 가는 평생의
집”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집이 있습니다. 집이 없
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집은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
자가 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울곧지
못한 자식이 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찢어지게 어려운 가난이, 어떤 사람은 층층
시하가 집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제인 저에게
도 집이 있습니다. 언변이 시원찮은 저에게는
미사 때마다 잘하든 못하든 강론을 해야 한다
는 것이 제일 큰 집입니다. 사제생활에서 강론
이 없다면 참 쉬울 것 같습니다. 미사만 정성
껏 집전하면 될 것이니까요. 그런데 강론을 준
비해야 하니까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고 묵상
도 해야 하고 책도 봐야 하고 기도도 하게 됩
니다. 만일 강론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내 하
고 싶은 운동이나 취미 생활도 맘껏 즐길 수
있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쉬고 싶은 대로 쉬
고 정말 부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

다면, 그런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
까? 나는 사제로서의 모습보다는 그저 농팡이
나 한량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런 의미에서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집이야 말
로, 나로 하여금 사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는 고리요 하느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활을 지지해 주는 지지대요 축복
이고 은총이고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
다. 은혜 중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짐을 지
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짐, 그것이 바로 은
총이고 사랑이고 은혜의 보화를 담고 있는 질
그릇입니다.

이해인 수녀님의 시는 계속 이어집니다. “나
는 밤낮으로 여울지는 끝없는 강물. 흐르지 않
고는 목숨일 수 없음에, 오늘도 부서지며 넘치
는 강물입니다.” 강물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
니다. 가만히 있으면 강물이 아닙니다. 흐르
지 않는 물, 고여 있는 물은 썩어 버립니다. 거
기엔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도 수초도
자랄 수 없습니다. 흘러야 합니다. 흐르기 위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굴러야 합니다.
한 마디로 얹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져
야 합니다. 그래야 굴러 갈 수 있습니다. 깨지
지 않고, 편안한 모습을 지닌 채로 흘러 갈 수
는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삶, 그것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오라버니를 잃은 마
르타와 마리아 자매처럼, 나에게 큰 상실의 아
픔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부활과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

영웅들의 출정

샬르 드 쿠베르탱, 1868년 작



쿠베르탱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대 올림픽을 창시한 사람, 피에르 드 쿠베르탱(1863~1937)을 떠올릴 것입니다. 화가였던 그의 아버지 샬르 드 쿠베르탱(1822~1908)은 아들만큼 유명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이 그림을 남겼습니다. 『출발(Le Départ)』이라는 제호를 달고 있는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103위 성인 가운데 세 분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가운데 얼굴이 환히 빛나는 분이 성 루도비코 볼리의 신부님이고 그 좌우에 성 헨리코 도리 신부님과 성 브르트니에르 신부님이 서 계십니다.

당시 아시아 지역으로 파견되는 선교사들은 이삼년 내에 순교할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브르트니에르 신부님은 “외국인이라 죽이기 곤란하니 너희 나라로 돌려보내 주라”하고 묻는 의금부 관리에게, “이 나라에 와서 해를 넘겼습니다. 이 나라 풍습에 익어 이곳에서 여생을 즐기려 하는데 어찌 돌아갈 마음이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도리 신부님도 “이 나라에 머무는 동안 말을 배웠으니,

죽으면 죽었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순교하실 때 두 분의 연세는 각각 28세와 27세였습니다.

도리 신부님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베 마리아』의 작곡자로 유명한 프랑스 낭만파의 거장, 샬르 구노(1818~1893)입니다. 파리 외방전교회 성당의 오르간 주자였던 구노는 조선으로 파견되어 순교한 선교사들을 위해 가톨릭성가 284번, 『무궁무진세에』를 작곡했습니다. “주의 용사들이 승전하여 계시니”라고 노래하는 그 용사들이 바로 이 그림에 담겨 있는 세 분 성인들입니다. 그림의 왼쪽 끝에 얼굴만 살짝 보이는 남자가 화가인 샬르 쿠베르탱이고,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뒤를 돌아보며 방실거리고 있는 아이가 바로 훗날 올림픽을 부활시키게 되는 피에르 쿠베르탱입니다. **필문**

쿠베르탱의 『출발』은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 현관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사품이 우리 교구의 남산동 대신학원 현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시성(諡聖) 30주년,

새로운 복자(福者) 124위 탄생을 기다리며

최홍길 레오 신부 | 수성본당 주임

한국교회가 지난 2백주년의 해 103위 한국성인 탄생 이후 열심히 기도하고 열망한 대로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시복이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성하에 의해 결정되었다. 지난 1984년 우리나라를 사목방문하신 복자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03위가 시성된 지 꼭 30년만이다. 또한 이는 1925년의 79위 시복식, 1968년의 24위 시복식에 이어 세 번째로 - 대구교구 순교자 20위를 비롯하여 - 124위의 새로운 복자 탄생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교황님께서 지난 1984년과 1989년에 이어 우리나라를 또 다시 찾아오신다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경사인가.

이번에 시복이 결정된 124위 순교자들은 대체 누구이고 언제 어디서 순교하신 분들인가. 보도자료를 보면, 신해박해(1791년)부터 병인박해(1866년) 때까지 순교한 창설 초기 신자들이다. 순교지로는, 남한 전역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서울(한양)이 37명으로 새남터 1명, 포도청 5명, 서소문밖 25명, 당고개 1명, 사망장소 불명 5명이다. 경상도가 29명으로 대구가 19명, 울산 3명, 동래와 진주 2명, 함안, 통영, 상주가 각 1명씩이다. 전라도에서는 24명이 순교했는데, 한국교회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바오로)이 순교한 전주가 22명, 김제와 무장이 각 1명이다. 충청도에서는 청주 5명, 홍주 4명, 해미 3명, 공주 2명, 정산과 덕산, 예산, 대흥 각 1명으로 모두 18명이 순교했다. 경

기도에서는 13명으로 여주에서 5명, 양근에서 3명, 죽산에서 2명, 경기감영, 포천, 남한산성에서 각 1명이 순교했다. 강원도 순교자 3명은 모두 원주가 순교지다. 124위의 신분은 양반이 60명, 중인 33명, 천민 4명, 신분미상 27명으로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우리 선조 초기 천주교 신자들은 신분의 벽을 넘어 신앙공동체를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특기할 만한 것은 중국 소주 출신인 주문모 신부를 제외하면 모두 평신도들이라는 점이다. 연령대별 분포는 10대가 5명, 20대 15명, 30대 21명, 40대 21명, 50대 19명, 60대 11명, 70대 5명이며 연령 미상도 27명이나 된다.

한국교회는 2백년 역사가운데 전반부 백여 년은 물론 왜정 치하와 한국전쟁 그리고 군사독재 시절 등 근현대사 전체가 가히 순교와 박해와 고난과 수난사로 점철된 순교사라 할 것이다. 유명 무명의 순교자가 만 명인지 이만 명인지 헤아릴 길이 없다. 증거적 자료가 남아 있는 극히 소수의 순교자와 증거자들을 대상으로 시복시성 운동이 펼쳐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복시성을 기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 그 어둡고 어려운 시절 순교자보다는 배교자가 더욱 많았음에 주목하며 -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순교자의 후예인지, 아니면 자칫 배교자의 후예는 아닌지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리라. 다시 한번 2백주년의 모토인 '이 땅에 빛을'을 새기며 '반 죽자!' 운동과 '신앙의 유산을 보전하자'던 메시지를 온 몸으로 체득해야 할 것이다.



행복의 옷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은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스승을 찾아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왕의 고민을 들은 노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의 옷을 입으시면 됩니다.”

다음 날, 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의 옷을 가져오라는 방(榜)을 나라 곳곳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왕은 홀로 짐을 꾸려 찾아 나섰지만 어느 곳에서도 행복을 자처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 잠을 청하던 어느 날, 왕은 멀지 않은 곳에 들려오는 아름다운 피리 소리에 잠이 깰했습니다. 왕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피리 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피리 소리고요. 무척 행복하

게 들리는데, 당신 마음도 그 연주처럼 행복하오?” 그러자 피리를 불던 사내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거든요.” “당신의 옷을 내게 파시오! 돈은 얼마든지 주리다!” 왕이 기쁨에 겨워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줄 옷이 없습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겠지만, 사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아요. 어제 지나가던 불쌍한 거지에게 마지막 남은 옷을 적선하고 말았답니다.”

왕은 그제야 스승이 말한 ‘행복해지는 옷’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남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의 기쁨이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간 왕은 그동안 쌓아 둔 재산을 풀어 가난한 백성을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필문**

금주의 성인

4월 6일	성 마르첼리노(순교자, 413년), 성 에우키티오(주교, 콘스탄티노플, 582년) 성 엘스탄(수도승, 주교, 윈체스터, 981년), 성 프루덴시오(주교, 트루아, 861년)
4월 7일	성 아프리카아테(은수자, 안티오키아, 345년경), 성 아이베르토(은수자, 크레스팽, 1060~1719년) 성 요한 드 라 살(신부, 설립자, 교육자, 1651~1791년), 성녀 우르술리나(환시자, 볼로냐, 1375~1410년) 성 헤르만 요셉(신비가, 1150~1241년), 성 헤제시프(순교자, 교회사가, 저술가, 110~180년)
4월 8일	성녀 막시마(순교자), 성녀 율리아 빌리아르(설립자, 나무르, 1751~1816년) 성 페르페투오(주교, 투르, 494년)
4월 9일	성 가우제리오(수도원장, 오레일, 1140년), 성녀 발테트루다(과부, 몽스, 688년경) 성 프로코로(부제, 순교자, 니코메디아, 1세기), 성 헤다(수도원장, 순교자, 870년)
4월 10일	성 마카리오(주교, 안티오키아, 1012년), 성 테렌시오(순교자, 250년) 성녀 막달레나 데 카노사(설립자, 베로나, 1774~1835년), 성 폴베르토(주교, 샤르트르, 1029년경) 성 파테르노(은수자, 압딩호프, 1058년)
4월 11일	성 라이네리오(은수자, 1237년), 성 스타니슬라오(주교, 순교자, 크라쿠프, 1030~1079년) 성 안티파스(주교, 순교자, 페르가몬, 90년경), 성녀 켄마 갈가니(동정녀, 환시자, 1878~1903년) 성녀 고데베르타(동정녀, 수녀원장, 누아옹, 700년경)
4월 12일	성 사바(순교자, 372년), 성 알페리오(수도원장, 930~1050년) 성 율리오 1세(교황, 352년), 성 제노(주교, 순교자, 베로나, 371년)

■ 여현국 디모테오 신부 군종교구 파견 미사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3월 31일(월) 오후 5시 교구청 사제관 내 성당에서 여현국(디모테오) 신부님의 군종교구 파견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여현국 신부님은 4월 22일(화) 군종교구로 파견될 예정이다.

■ 서하기 루카 신부, 해군 군종병과장 임명



군종교구에서 파견근무 중인 대구대교구 소속 서하기(루카) 신부(해군 대령)님께서 2014년 3월 27일(목) 해군 군종병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 교구 소식

4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4월 13일(일) 14:00, 장소: 1~3대리구_ 남산동 대신학원 / 4, 5대리구_ 각 지역



새주소 사용 2014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 발간

교구 문화홍보실에서는 2014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을 새롭게 발간합니다. 특히 이번에 발간하는 주소록은 도로명 새주소 사용에 맞추어 전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제 인사이동 및 개편 등에 따른 최신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판매가 : 5,000원 | 620쪽

구입문의 : 교구 문화홍보실 053) 250-3047~9

너그러운 마음으로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4월 7일(월) 11:00 성동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4월 7일(월) 11:00 죽도성당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4월 7일(월) 11:00 계산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4월 7일(월) 19:30 교육관성당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4월 12일(토) 11:00 성모당

성소 | 피정

예수성심시녀회 성소 모임

일시: 4.13(일) 14:00~18:00

장소: 수녀원(앞산 카페거리)

대상: 주님 찾는 미혼 여성

피정: 개인상담 및 수시

신청: (010)2649-2045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4.13(일) 14:00

장소: 부산 부곡동 본원

대상: 외방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19-1690

골롬반 평신도해외선교 관심자 모임

일시: 4.13(일) 14:00~17:00

장소: 골롬반선교센터(성산여대역4번출구)

문의: (010)5061-6722

<http://www.columban.or.kr>

내적여정 에니어그램 피정

기간: 4.11(금)~13(일)

장소: 경남 고성 수도원

문의: 안젤로 수사, (010)3664-3986

올리베라노 성 베네딕도 수도회

삼성산 4월 2박 3일 무료 대피정

기간: 4.11(금) 18:00~13(일) 15:00

출발: 마산역 김안과 10:00

문의: (010)8375-4600

수도자와 함께하는 청년 부활 전례 피정

기간: 4.18(금)~20(일)

장소: 톡썰포교베네딕도회 대구수녀원

문의: (010)8519-3431 / (010)9347-3431

청년 도보 성지 순례 피정

기간: 5.3(토) 11:00~5(월) 14:00

코스: 대전교구 내포지역(솔피~해미)

대상: 33세 미만 미혼 여성(선착순, 4만원)

문의: 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코회,

(010)2570-0939

거룩한독서 LD 피정

가족피정: 5.3(토)~4(일)

4박 5일: 5.28(수)~6.1(일)

문의: 연화리 피정의 집

(054)973-4835

교육 | 모집

예수마음배움터 기도 영성수련

2박 3일: 4.11(금) 17:30~13(일)

4박 5일: 5.12(월) 14:00~16(금)

8박 9일: 4.24(목) 14:00~5.2(금)

에니어그램: 4.12(토) 15:30~13(일)

문의: (031)946-2337~8

가톨릭신문 크루즈 성지순례

기간: 5.26~6.6(11박 12일)

장소: 이탈리아, 프랑스, 모나코, 스페인

가격: 내측 518만 원, 발코니 558만 원

이용: 핀란드 항공

문의: 428-5004

<http://www.cttour.org>

16회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어학연수

1차: 6.25(수) (8,12주)

2차: 8.24(일) (8,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23회 청소년 필리핀영어연수(4주)모집

제주도 관광 안내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안내

차량, 호텔, 팬션 예약 가능

주관: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문의: (064)758-6476

(010)4566-647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사무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전통한복의 명가 대한민국 한복명장
이명자 한복방
· 혼수/예단/수의 · 한산모시 전문점
중구 반월당 삼정그린코아 상가 115호
☎ (053)421-2827/421-2828
이명자(세실리아), 강윤정(아레스)

사랑의 청정지역 명동 김 — **광진 이조맛김**
김 · 건어물 · 젓갈류 판매
성전김(김) 마른 및 바자회, 성모회 · 자모회 등 각종 단체 기증모임
전 영 진(바오로) 010-4192-5655
이 경 숙(모니카) 010-4123-5353
농림 351-0054-3404-83 예금주 이경숙
한개라도 배송해드립니다. 5만원 이상 배송비 무료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8827-6207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이시우 신경
<http://척추외과> **외과**
척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성요셉요양병원
(구. 농공가톨릭병원)
매일미사, 상시고해 · 병자성사, 봉성체, 병실순회 기도
치매 · 중풍 · 노인성질환 전문 클리닉 운영
24시간 전문간병인 · 의사 · 간호사 상주 진료
친환경적 병실 운영, 양 · 한방 협진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일본 성지순례
나가사키, 히라도 4월 24일 (4일)
유우인, 오이따 5월 28일 (5일)
6월 04일 (3일)
“영국어학연수 및 유럽문화탐방”
여름캠프 참가자 모집
T. 053)253-3399
www.sungjitour.com
(주)성지여행 프렐레(유티노)

JINSUNG **진 성 건축**
Architects & Interior
건축사 · 인테리어 사무소
건축설계/인테리어/전원주택
대표/건축사 성 호 근(다니엘)
이 흥 배(안드레아)
효목동 효동초등학교 입구
T.017.242.7927, 053)952-7927

행사 | 모임

4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4.13(일) 14:00

1~3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4대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평화성당

교구장기 테니스대회

일시: 5.11(일) 8:30

장소: 대구가톨릭대 효성교정 테니스장

신청마감: 4.11(금) 17:00

문의: 평신도 담당, 250-3057

칠곡, 평화의 누릿길(예술과 함께하는 토요여정: 작은음악회 등)

출발: 4.26(토) / 2만 원(중식 제공)

장소: 왜관수도원, 가실성당, 구상문화관,

호국기념지 등(www.dgpbcc.co.kr)

주최: 칠곡군 / 대구PBC, 251-2621

교육 | 모집

소람상담소 자원봉사 Helper 모집

자격: 상담관련 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 이메일 kim-sinbu@hanmail.net

문의: 소람상담소, 250-3113

계산성당 부활 사순 특강

일시: 4.8(화) 20:00

주제: 죄에 이르는 길

강사: 황창연(베네딕토) 신부

일시: 4.10(목) 20:00

주제: 그리스도인의 희망

강사: 차동엽(로베르토) 신부

가톨릭 부모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일시: 4.30(수) 14:00~16:30, 접수: 13:3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 1만 원

주제: 부모 코칭 / ※전화신청가능

강사: 이선혜(대구지역사회교육협의회)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5

상반기 정의평화위원회 수요일레특강

일시: 4.9(수) 19:00

장소: 1대리구청 강당

주제: 환경과 생명(불-에너지)

강사: 양기석 신부(주교회의환경소위원회총무)

문의: (010)5923-3613

시편성가, 발성법 연수

강사: 김정선 수녀, 박재연

일시: 4.6(일) 15:00

회비: 1만 원 / 문의: 255-4847

대구가톨릭한의사신우회 회원 모집

대상: 대구경북지역 한의사 신자

활동: 매월 렉시오디비나,

성심복지의원 의료봉사,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료봉사

문의: 김영태, 659-7000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플룙, 바이올린, 오카리나, 통기타,

우쿨렐레, POP, 초크아트, 톨페인팅,

백세건강강좌(무료)

문의: 476-6211

바오로 모래놀이치료 상담센터 안내

장소: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 본원

대상: 심리적, 정서적도움이필요한분

강사: 박지선(예노파) 수녀

(모래놀이 전문치료사)

문의: (010)4600-2433 / 659-3333

채용 | 안내

상인성당 사무원 채용

마감: 4.5(화)까지

자격: 미혼, 기혼 여성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문의: 639-1900

SOS프란치스카의집 간호사 채용

모집기간: 4.30(수)까지

구비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본, 면허증사본

문의: 986-2077~78

2014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가격: 5천 원, 620쪽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7~9

부모님께 받은 사랑 이제 돌려드리세요!

백내장수술은 사랑의시작입니다.

의학박사
현.연세대의료교수 원장 **박종원**(소시모)

대구연세안과
☎053.626-8881~5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100년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가대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갑니다

2014. 5. 15
개교100주년
기념식

대구가톨릭대학교
DAEGU CATHOLIC UNIVERSITY

길 안 건 축

리모델링 전문업
옥상방수, 철, 단열시공
판넬, 창호, 철거

☎ 053)556-6257 김기석
010-6608-6257 (다니엘)

백두정형외과
SINCE 1975 http://baekduos.com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배상근 베드로
신생아 세부전문의 배상영 미카엘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53-425-5919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

해아림한의원

소아클리닉 - 틱, ADHD, 아노
마음클리닉 - 공황, 불안, 불면

원장 **김대익**(안드레아)

예약 : 053)751-0071
2호선 수성구청역
4번출구 승원학원옆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상운**(안젤로)
송정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미소인치과

원장 **이종현**(프란치스코)
송선희(안나)

지하철 범어역 4번 출구

전화상담 ☎53)752-7575 **이진호**
www.misoindental.com **이진호**

에플비뇨기과
www.appleuro.com

비뇨기과 원장 **강일**(베드로)
전문의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채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